



“촛불이 보살이고 국민이 부처입니다”
정부의 미군산 쇠고기 수입과 종교편향에 불교계도 촛불을 들었다. 7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봉행한 ‘국민수호 수호와 권력의 참화를 위한 시국법회’에서 조계종 교 육원장 청화 스님, 시국법회 공동추진위원장 수경 스님 등 출가자 1000여명과 재가자 3만여명은 ‘촛불을 위한 생명과 평화의 108참회’를 올렸다. 청화 스님은 “현 시국을 두 눈으로 봅시다”라는 주제의 시국법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는 보면서 광우병은 보지 못하고, 미국 부시 대통령은 보면서 국민은 못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협상 선언이 세상을 두 눈으로 보는 시작”이라 법문했다. (자세한 기사는 www.buddhanews.com에)

“여성불자들이 교단 주인공 되길”

명성 스님 ‘제10차 사카디타 대회’서 기조연설

“여성불자들이 세계화와 다문화 속 과도기를 개혁과 변화로 이끄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7월 1-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과도기의 불교: 전통, 변화, 그리고 도전’을 주제로 전세계 사카디타 (Sakyadhita, ‘석가의 딸들’이라는 뜻의 범어의 잔치가 열렸다. 제10차 사카디타 대회에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은 1일 “여성불자간 소통과 역량을 강화해 교단의 주인공이 되자”며 기조연설을 했다.

명성 스님은 “역사의 평원을 넘어선 여성불자들: 21세기의 비구니승가와 리더십”을 주제로한 연설에서 “200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비구니 계율과 계맥’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가 비구니 수계제도가 없던 티베트 불교에 비구니 수계 가능성을 열었다”며 사카디타 대회를 통한 여성불자간의 교류를 강조했다. 스님은 “여성 승가 성립에 대해 다각도의 접근과 각고의 노력, 도전이 필요하다”며, 여성불자의 역량 강화도 역설했다. 이어 스님의 연설은 몽골 불교 발전이란 발원으로 이어졌다. 스님은 “13세기에 몽골은 불교가 국교일 만큼 융성했으나 20세기 초 사회주의 체제를 맞아 1990년 붕괴될 때까지 1만7000여 스님들이 속 청당하고, 수천 곳의 불교사원도 없어져 불교가 소멸직전까지 내몰렸다”고 말했다. 스님은 “몽골불교가 21세기를 맞아 세계 불교 흐름에 합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승단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최근 몽골에서 일어난 전통불교 복원 움직임에 “몽골초원에서 부활하는 불교”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표현한 스님은 “몽골불교도 비구니 승단을 조직해 여성불자를 위한 안정적인 수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성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세계평화에 기여 ▲세계 여성 불자들의 의사교환 조직망 구축 ▲다양한 불교 전통에 대해 화합과 이해 증진 ▲불법의 스승으로서 여성을 교육시키는 노력 ▲여성 불자의 불교연구 및 수행시설 개선 ▲비구니 승단이 성립되도록 노력한다 등 사카디타 창립 서원을 실천하며, 여성불자들 모두가 치열한 구도정신으로 살자고 당부했다. ‘소통과 역량’을 강조한 명성 스님의 기조연설은 전세계 비구니와 복원 움직임을 ‘몽골초원에서 부활하는 불교’라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직장불교’ 100호 발간 계기로 본 직장직능불교 현황과 과제

직장불심 되지피자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충)이 직장직능단체 활동 소식을 담아 매월 발간하고 있는 <직장불교>가 7월호로 통권 100호를 맞았다. 포교원은 또한 지난 7월 5-6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직장직능연합신행단체 임원수련대회’를 7천만에 개최했다. 임원수련대회 자체가 2001년 이래 다시 열리기는 올해가 처음이라 직장직능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신심과 친목을 다지고 직장직능연합체가 직장 불심을 이끄는 데 새로운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

■ 직장직능불교의 현황= 직장직능단체가 본격적으로 결성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다. 당시 거제 대우조선소, 울산 삼성중공업 등 영남지역 대기업 생산공장과 서울의료원 등에 병원불자회가 탄생하면서 각 불자회가 큰 조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운전기사불자연합회, 교사불자연합회 등 전문직 불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다. 그러다 2000년에는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되면서 불자회 창립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04년까지 그 열기가 이어졌다. 이 시기에만 약 200여개의 단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조직의 외연이 확산되는 것만큼 내실이 따라주지 못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직장직능불자회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 구성원의 발심과 노력이 중요= 직장직능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단체 결성 초창기에는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구성원 간의 중심점이 있어야 모임과 법회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들이 최소한의 보수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모임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삶과 수행이 유리되지 않은 직장 불자에 대한 종단의 관심과 노력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직장직능단체 불심 왜 안 잡하나= 2004년까지 잘 운영되던 불자회가 쇠퇴일로로 걷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광진경찰서불자회와 건국대병원불자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법경 스님(서울 능인정사 주지)은 “요즘 직장인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직장인의 다른 활동은 엄두도 못낸다는 것이다. 또 직장인들은 한 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고 옮겨다니는 특성이 있다.

■ 활성화된 직장직능단체 들어다 보니= 직장직능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잘 되고 있는 단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

는 것도 직장직능불자회 유지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직장은 조직체 계라 계급이 낮은 직장불자들은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직장직능단체 설립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불자회가 창립됐다 하더라도 신입회원 가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지가 힘들다. 직장직능 불자들은 종단이 각 단체들을 관심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지원해주거나 지도법사를 배정시켜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사이트 활성화다. ‘GM창원 불교법우회’의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cafe.daum.net/GMBUDDHA)를 개설, 회원들끼리 인터넷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불심을 돈독히 한다. 개별 직장직능단체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도 회원들의 이탈이 적다. 서울대 교수불자회 ‘불이회’는 한 달에 한 번 큰스님이 사회명사를 초청하는 특별법회를 갖는다. 성복승무사무소법우회나 전국금융단체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등은 각각 봉사활동으로 토폴몽친 단체들이다.

신행법회를 공고히 하는 것도 직장직능단체 유지에 도움이 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인지역불자회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3000배 철야정진’으로 신행의 중심을 잡았다. 다른 지부에서도 강사 스님들을 초빙해 경전 강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직장직능단체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승가는 충분한 지도력과 불교적 소양을 갖춰 안정적으로 법회를 이끌고 재가는 법회를 진행할 물질적 토대와 홍보, 조직 관리를 담당해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과 울이온, 안원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진화경적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간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 관육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득한 향양수로 관불,관육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정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님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님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